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월간 RI NEWS

# 7

1998

1998년7월호 통권 제19호 발행인:고창순 편집: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주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12 전화:(02)566-1092(대) FAX:566-1094 인쇄:성문사 비매품

## '97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매년 과학기술부가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에 위임하여 실시해오던 원자력산업실태조사(원자력법 제10조에 20에 근거) 중 방사성이용분야에 대하여 우리 협회가 원산과 위탁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번 조사는 제3회 조사로 12회 조사시와 연계하여 조사방법 및 내용을 보완하게 되며 주요 보완된 조사내용의 특징은 이용형태별(분야별 목적, 유형별 용도등)로 기계의 제작년도, 수입년도, 사용기간, 유지보수, 제품의 수입국(원산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및 직접방문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원자력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신규 원자력산업체를 파악하며, 원자력산업계의 자체진단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조사 목적에 포함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연도는 1997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까지이다.

## 면허소지자 현황 파악

협회는 면허자 전문인력 관리측면에서 국내 방사성동위원소등 관련 면허소지자의 실태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면허발급 현황을 보면 감독자 582명, 특수면허 791명, 일반면허 3,161명으로 총 4,534명의 면허자가 배출되었으나 사후 관리체계의 부재로 이들 인력에 대한 복수 면허소지자현황 및 면허소지자의 현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제도상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면허자만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면허소지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이 자영업 등 타분야에서 종사할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더 어렵다. 본조사는 8월중 조사표를 R등의 사용업체등에 보내게 될 예정이다. 이번의 조사를 통하여 면허자를 R이용분야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므로써 방사선안전관리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작업진행상황과 공지사항은 본지를 통해 계속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정보관리팀, 전화: 02-566-1092)